

리얼리티 수필일기 <上>



백광식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

11월 12일 치과 업무로 부산에 다녀오느라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시 일 뒷정리를 하며 자정을 막 넘던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불길한 예감으로 받은 전화에서 "(전화) 큰스님 소식 들으셨어요?" 라는 스님의 음성이 들렸다.

"무슨 소식이에요?" 뛰는 가슴을 달래며, 내가 겨우 말을 꺼내자, "큰스님께서 밤 10시 30

소에 그렇게 싫어하던 도시의 번잡함이 그리워질 줄은 나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혼신이 중요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나중에 서울로 돌아와 '수재전(국악곡)'을 들으니 이게 웬일인가! 음악 중에서 가장 유장하고, 단조롭고 조용하며, 평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던 수재전조차 소음으로 들렸으니, 지금 젊은이들이 듣는 빠른 템포의 시끄러운 음악은 더 이를 것이 없었다.

그 전해 봄에 결성된 보리회는, 어려서부터 스님들의 결림 없는 모습과 절을 향한 막연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으나 불교를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던 나에게 가문의 단비였다. 또한 일요일마다 참석한 조계사 중고등학교를 통해 구도의 목마름을 채웠다.

이후 나의 스승이 되신 청화 큰스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보리회' 인연 맺고 불교 입문

청화스님께 간절한 구도 편지 드려 친견

분에 성룡사 조선당에서 입적 하셨습니다" 라는 스님의 침통한 말씀이 전화 너머 아득하게 들려왔다.

돌이켜 보면, 1966년 1월 예산 수덕사에서 가진 열흘간의 수련대회가 나의 불교 수행의 시작인 셈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보리회(서울사대부고 불교학생회)의 동계수련대회 장소를 정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답사하다가 확정된 곳이 원담(해공) 스님께서 총무로 계셨던 수덕사였다. 당시만 해도 삼교에서 해미행 버스를 타고 가다 중간 삼거리에 내려 1~2시간은 걸어야 갈 수 있는 수덕사의 추운 겨울은 인적이 드문 정적 그 자체였다.

하루 8시간의 참선, 틈틈이 이어지는 해공 스님의 선 법륜, '의상조사 법상계' 해설은 가행정진의 좋은 기회였다. 수련대회를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나니, 서울의 번잡함과 인파가 머리를 스치며 그리워졌다. 평

1985년 돌리산 태안사에서였다. 고교시절의 수덕사 수련대회 후, 20년이 지나 군복무와 석박사 학위과정을 모두 마치고 치과 개원을 한 지 5년쯤 지난 때였다.

평생도반인 수행 보살이 철장사 만등불사에 다녀오자마자 나에게 만등의 장엄함과 청화 큰스님을 뵈 기회를 주지 않고 이야기했다. 또 큰스님께서 만등불사 회향 바로 다음날 곡성 태안사로 떠나셨다며, 큰스님께 간절한 구도의 편지를 드렸다. 큰스님으로부터 답신을 받아마자, 수행 보살과 나는 곡성행 기차를 탔다. 당시에는 태안사에 정기 차편이 없었고, 곡성에서부터 비포장길에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초행길에 택시 차창 너머로 하늘에 등그러니 걸려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자갈이 튀는 가운데 길을 한참 달려 조그만 초등학교를 지나니 돌리산 태안사의 동구밖이었다. (계속)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다”

도는 평범한 삶에서 찾아야 구체적인 '나'와 무관하지 않아

"도(道)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고도 구체적인 바로 우리네 삶이요 현실이죠. 또한 도는 지금 이 순간의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이 '현재'일 뿐입니다."

11월 22일(토) 오후 3시, 서울 가회동의 한 빌딩에 자리잡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래사클럽) 강의실. 30대 청년에서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20여 수강생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강사인 김기태(43, 대구) 거사가 <도덕경> 29장에 대해 열강하고 있었다(사진). 자신의 수행 체험과 유머를 곁들여 도를 말하는 그의 입에서는 전혀 신비하거나 추상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건만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김 거사는 도에 대해 말할 때, "따로이 무언가가 있는 양 말하지 마라. 삶과 유리된 도도 말하지 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너무나 구체적인 '나'와 무관한 도도 말하지 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강의 내용에 대한 확신에 차



'道' 강의하는 김기태씨

모든 존재 진리안에 있어

▶94년 6월 '마침내 모든 방향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나의 구도과정은 전혀 뜻밖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미 진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이미 진리 안에 있었고, 단 한 순간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어이전의 세계는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무엇이 아니라 깨달음과는 무관한, 깨달음과 수행과 체험 이전의 지금 이대로였습니다."

번뇌는 모자람, 남음 없는 보리

▶선(禪)에서 말하는 '번뇌 즉 보리'임을 깨친 경계인가요.

"도(道)는 그렇게 추상적이지도 않거든요? 불만, 게으름, 외로움, 분노, 미움, 짜증 등등이 사실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구체적인 우리들의 감정과 오욕칠정(五慾七情), 즉 그 번뇌가 사실은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보리(菩提)라는 말이지요."

'부족' 믿으면 도 알게 돼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번뇌 즉 보리이니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간택(揀擇)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순간순간 우리 안(內)을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것을 잘라버리거나 잡아늘이지 말고 그냥 그 속에 있어 보라. 다만 그와 같이 간택하지 말고 현재의 그 '부족' 속에 있어 보라. 그 '부족'을 믿어 줘 보라. 그리하면 머지않아 곧 지극한 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매순간 진정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아이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게 좀 막연하지 않을까요.

"외로움과 분노, 미움과 막막함 등등의 온갖 번뇌가 이미 우리에게 와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못견뎌 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지요. 그러나, 단 한 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거기 그냥 있어 보세요. 단 한 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관법명상수련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2004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8박9일간 제8차 관법(觀法)명상수련회를 연다. 황용식 교수가 지도하는 관법명상(http://cafe.daum.net/gwanbeob)은 자신과 삶과 세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깨닫는 명상이다. 특히 각자의 존재를 형성하는 요소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존재들의 현상과 그 근본적 성격을 참되게 알고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마침내 우리 자신과 주위의 생명 있는 존재들을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해가는 명상이다. 인도 고엔카 계통의 위빠사나 명상의 기법을 따르면서도, 대승불교의 명상들과 통합하고 오늘날의 상황에 보다 적절한 지금 여기에서의 융합적인 명상을 모색하는 수련회다. 선착순 30명 모집. (02)808-6582

금강경오가해 및 돈오입도요문론 설법

공주 학림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금강경 오가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돈오입도요문론> 특강법회를 연다. 학림사 오동시민선원 조실 대원 스님이 설법하며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의 철야 참선정진도 직접 지도한다. (042)825-1724

순일수련원 송년 공부나눔

순일수련원은 12월 20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물골안 유원지에서 '순일 이등호 선생

있었다.

"잘만 들으면, 그날 <도덕경>이라는 책 한 권 공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과 존재 전체가 뒤바뀌는 거예요. 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한 것을 알았다는 단순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존재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입니다."

대구 정화여고 교사, 영남일보 교열부 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출연하 지리산과 상주 극락원 등으로 떠나 수행하던 어느 날 뉴욕, '뜻밖에 나는 언제나 진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김 거사. 몇 년 전부터 서울, 부산, 대구, 구미, 포항 등지에서 <도덕경>을 비롯해 <신심명> <금강경> <육조단경> <돈오입도요문론> 등을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몇 달 전 자신의 구도기를 담은 노자 해설서, <참나에서 샘솟는 행복의 향아, 여기> (한반도라는 책을 펴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김 거사를 미래사클럽 강의 전에 만났다.



무애(無碍)에서 비롯되는 자유, 질서 존재

▶그렇게 알면, 바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아는 것'과 '그 자체가 되는 것'과의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전자는 끊임없는 긴장과 내적 구속을 동반하지만, 후자는 무애(無礙)에서 비롯되는 무한한 자유와 질서가 있어요. 전자는 살았으나 죽었고, 후자는 살아서 이미 영원한 참 생명의 풍요 속에 거하는 거죠."

무언가 하려는 마음 쉬는 게 중요

▶결국 뉘를 갖도, 증득할 것도 없군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선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는 그 마음만 쉬면 돼요. 진실로 그럴 수만 있다면, 진실로 그렇게 그칠(止) 수만 있다면 그만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과 함께 하는 송년 공부나눔' 모임을 갖는다. 순일수련원 이등호 원장이 만든 순일 프로그램.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 원인이 과거의 번뇌와 미래에 대한 바램과 근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가져 나를 녹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체험적 프로그램이다. (031)771-9765

해인사 겨울수련회

법보종찰 해인사는 12월 11~14일(일반인, 100명), 18~21일(일반인, 100명), 25~28일(수련동문회 및 경험자, 100명) 3차에 걸쳐 겨울수련회를 연다. 접수는 선착순이며, 인터넷(www.haensa.or.kr)으로만 가능하다. (055)934-3110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이 쌓이고 관절 사이 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파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스프레이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발보호소)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불교의식 전문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대승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전통 의식반을 운영 하오니 재가 신도나 스님들의 수강신청을 바랍니다.

모집반

- ㉠ 초급(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목탁, 오령, 경쇠, 대장, 범고, 다루는법 지도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청, 축원법, 관음정근법.
- ㉡ 중급(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정청, 관음시식, 회양시식, 다비식, 정안의식, 전시식, 방생의식, 산신기도법 등등 종합적인 의식반.
- ㉢ 작법반(6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비라(비라춤), 다계작법(나비춤), 오공양작법, 오잡바라, 삼귀의작법 등등.
- ㉣ 속성시율반(3개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사다리니, 대다라니, 권공의식등, 경쇠, 북다루는법 집중지도
- ㉤ 특별반(전문인식반): 영산재, 예수재, 정안인식반 소수운영

대승경전 강의 수강생 모집

가) 화엄, 범화사상강의: 매주 수요일 12시 ~ 1시
나) 대승보살도 기초교리과정: 매주 목요일 12시 ~ 1시

신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지하철역 정문앞
문의 전화: (053)622-0333

대구 대승불교대학 의식교육원 원장 합장

영험도량

픽마승 예민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발승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 ▶기간: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수요일 - 매주(수) 오후 1시 ~ 3시 / 목요일 - 매주(목) 오후 7시 ~ 9시
- ▶지도교수: 金哲會 박사
- ▶장소: 본 연수원
-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3가 20(영흥 B/D 4F)